

‘불안’으로 신음하는 청년들, 다중 압박에 갇혔다

정체성 혼란과 신앙 갈등 더해... 교회가 실질적 돌봄 제안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에 참여한 청년 10명 중 8명은 불안·우울·관계·가족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체성 혼란과 신앙 갈등까지 더해진 복합적 그림 상태에서 청년들은 ‘심리상담과 재무상담’을 통해 교회 인팍에서 실질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3일 서울 마포구 높은뜻광성교회에서 연 ‘불안해도 괜찮아, 함께 걷는 WAY’ 콘퍼런스에서 기윤실 청년상담센터가 최근 5년간 국내 기독교 청년 248명과 나눈 상담 기록이 공유됐다. 기윤실 청년센터 출범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선 광운대 청년상담센터 위드 공동소장과 김서로 청년회망재무상담소 원즈 소장이 각각 ‘기독교 청년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 실태 및 상담의 효과와 과제’ ‘기독교 청년의 경제적 불안 실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상담 기록을 살펴보면 기독교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심리적 어려움은 불안(46%)이었다. 이어 대인관계 어려움(43%) 우울(33%) 가족 문제(30%) 성격 문제(21%) 진로 고민(18%) 등이 뒤를 이었다. 광 공동소장은 “청년들이 불안을 토로한 배경엔 진로와 결혼의 불확실성, 직장 내 대인관계 등 복합적인 과제가 얹혀 있었다”며 “신앙이 심리적 지지대가 되기도 했으나, 불

안감과 신앙 사이에서 죄책감을 경험한 기독교청년들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년세대가 직면한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는 경제적 압박이 지목됐다. 김 소장은 “돈을 버는 과정(소득), 돈을 쓰는 과정(소비), 돈을 모으는 과정(자산), 돈을 갚는 과정(부채) 등 경제적 과정 전반에서 청년들은 불안을 경험한다”며 “재산 규모와 상

관없이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과 씨름한다. 부족할 때는 생존이, 충분할 때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청년들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청년 취업률 67.7%와 평균 재직 기간 35개월이란 숫자를 짚었다. 그는 “취업을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청년들은 돈을 못 벌어도 불안하고 돈을 벌어도 불안하다”며 “청년들은 타인의 경제 상황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건강한 소비 습관을 기르고 현실에 맞는 재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교회는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영적 성장과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족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이들의 인생을 응원하는 실천적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희망기금’ ‘청년 학사관’ ‘사역 참여에 따른 소정의 인건비 지원’ 등을 교계에 제안했다.

‘킹 오브 킹스’, 韓 극장가서도 통했다... 박스오피스 1위

찰스 디킨스의 시선으로 재구성된 예수의 생애



북미지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국내 극장도 장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킹 오브 킹스’는 지난 20일 12만 7,984명을 동원해 흥행 정상 자리에 올라섰다.

지난 16일 개봉한 ‘킹 오브 킹스’는 개봉 첫날 3위로 시작해 18일에는 4위로 내려앉았지만 실관람객들의 일소분에 힘입어 19일 2위로 올라서더니 20일 드디어 1위에 등극했다. 누적관객수는 38만 8,420명이다. 또한 동시기 개봉작 중 개봉 주말 좌석판매율 1위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흥행 레이스에 돌입했다.

주말 이틀간 총 26만 6,000여명을 동원하며 역대 국내 애니메이션

선 흥행 순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17만 6천, ‘사랑의 하룻밤’의 23만명의 개봉 주말 스코어를 모두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킹 오브 킹스’는 영국의 뛰어난 작가 찰스 디킨스가 막내아들 윌터와 함께 2000년 전 가장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정을 글로벌 흥행작 K-애니메이션이다.

한국 감독 장성호가 연출하고, 오스카 아이작, 피어스 브로스넌, 케네스 브래너, 우마 서먼, 포레스트 휘테커, 마크 해밀 등 초호화 성우진이 참여한 이 작품은 미국과 한국의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모는 부활절 시즌에 맞춰 개봉되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서사는 익숙하지만, 이 영화는 ‘찰스 디킨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의 삶을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독특한 틀을 통해 이를 재구성한다.

디킨스가 남긴 비공개 가정용 문서인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를 바탕으로, 19세기 영국의 가장 공간과 고대 팔레스타인의 사건들이 교차하며 전개되는 서사 형식은 이 영화를 단순한 성경 애니메이션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제작진의 포부를 엿보게 한다.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 내려가고 있는 ‘킹 오브 킹스’는 현재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말씀의 초대 | 시편 3:1~8

“여호와께 있사오니”



송용현 목사
안성중앙교회
경남지침회장

시편 1~2편이 원래 한 편의 시로 보고 있고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3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사건과 믿음의 고백적인 면에서 보면 인생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큰 아픔은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치며 쓴 시로, 극심한 배신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주제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 시에서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배신과 고난의 현실(1-2 절)

다윗은 갑작스러운 배신 앞에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대적들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며 그의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배신당하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낙심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라는 의심이 들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봅시다. 나는 내 아픔을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져가는가?

2.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3-4절)

다윗은 배신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방해, 영광,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신뢰합니다. ‘방패’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이며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신다’는 뜻이며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뜻은 낙심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육체적 고통으로 아플 때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방해로 삼고 있는가?”

3.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평안(5-6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7: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배신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쉬를 누리는가?

4.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라(7-8절)

다윗은 결국 승리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국 스스로의 힘이나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할 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도탄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시종에게 엘리사가 말했다.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왕하 6:14~17)라는 믿음의 외침이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제56회 목사고시 공고

| 제104회 총회 56회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사고시 일정, 교육설명회 원서접수 안내

가. 목사고시 접수 : 2025. 7. 7.(월) ~ 8. 8.(금)

나. 목사고시 일시 : 2025. 11. 6.(목) ~ 7.(금)

다. 교육 및 설명회 일시: 2025. 9. 4.(목)~5.(금)

2. 목사고시 장소 : 총회본부

3. 원서제출 및 접수방법

가. 접수 처 : 총회본부 사무국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우편접수(8월 8일(금) 17:00까지)

※ 원서 인터넷 제출방법 :

① 원서 다운로드 : 총회본부 인터넷접속 → 로그인 → 온라인행정 「온라인 원서접수」 클릭 → 목사고시원서 다운로드

② 원서 작성 : 저장한 문서(원서원서)를 불러낸 후 → 컴퓨터상에서 원서작성 → 원서 및 수험표에 사진입력 → 최종 저장

③ 원서 제출 : 로그인 → 온라인행정 → 「온라인 원서접수」 클릭 → 제목, 비밀번호, 내용 작성 후 「첨부파일」을 눌러 저장했던 원서 올리기

나. 신청서류 : 원서원서, 반명함판 사진(3×4) 2매, 전도사청빙승인증명서 1부 (해당 지방회에서 발급 받으신 후 총회로 우편송부, 제39회~55회 응시자는 제외)

다. 응 시 료 : 과목 당 35,000원×신청과목 수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1-01-0390-296 (예금주 : 예성총회)

4. 응시자격 :

성경대학교, 총회성경교신학교 졸업과 성경신학대학원, 성경교신대원 수료 또는 졸업 후 본 교단 각 지방회에서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은 자 (단, 군종목사 후보생은 전도사 청빙승인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가. 각 과목 70점 이상은 합격으로 한다.

나. 군목 및 선교사 지방생도 목사고시에 응시해야 한다.

다. 해외 응시자는 각 과목을 레포트로 응시한다.

라. 시험 고사장에는 필기도구 외에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마. 시험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은 총회본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 1600-0695 내선2, 070-7132-0011)

바. 복장은 반드시 정장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과목수를 1회당 7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6. 고시과목 안내(총 11과목)

△구약신학: 적진성 목사 △교회개척과성장 이충동 목사 △선교와전도: 임복용 목사

△예배학: 배상도 목사 △신약신학: 김순홍 목사 △헌장: 전영호 목사 △조직신학:

김영택 목사 △설교학: 김원태 목사 △시종복음: 김정호 목사 △교회사: 강명국 목사

△목사학: 고신원 목사

※ 과목명 변경 안내 : 교육목회 → 신약신학, 성서신학 → 구약신학 (교육목회, 성서신학 합격자들은 신약신학, 구약신학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 목사고시 시간표 및 교육설명회 시간표, 목사 고시예제, 연구과제, 등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목사고시 교육 및 설명회에 필히 참석하고 총회홈페이지(공지사항)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홍사진 목사 / 목사고시위원장 강명국 목사 / 서기 임복용 목사